

금 호 타 이 어

금호기술연구소 설립 10주년 맞아

기술자립을 통한 2000년대 금호 Vision의 실현과 세계적 타이어 메이커로의 성장을 목표로 설립한 금호기술연구소가 9월 25일 설립 10주년을 맞이 하였다.

1981년 설립 이래 기초기술과 응용기술, 미래형 첨단제품의 개발을 계속해오고 있는 금호기술연구소는 4,500여평의 건평에 Pilot Plant, 주행시험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가장 안전하고 승차감이 좋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500명의 연구인력이 24시간 연구에 정열을 쏟고 있다.

한편, 기술연구소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단한 기념식과 아울러 외부 초청강연과 특별세미나 개최, 그리고 그동안 제품개발에 공적이 많은 연구사원에게 표창도 하였다.

3/4분기 신상품 설명회 가져

지난 8월 30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91년도 3/4분기 신상품 설명회를 가졌다.

개발된 제품의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보다 원활한 판매활동에 기여코자 매 분기별

로 신상품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내수·수출부문과 신입사원들이 참석했다.

제품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제품개발 배경과 개발규격현황, 제품특성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업 사원들은 제품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선보인 신상품은 790패턴과 Power Grip 842패턴, 945, 958패턴이었다.

김해진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연구3부문 접착연구 1그룹에서 스틸코드와 고무의 접착을 연구하고 있는 김해진 선임연구원이 지난 8월 26일 "Acetonitril 용매에서 Sulfenamide유도체의 전기화학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 선임연구원은 전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78년 입사한 뒤, 일주일에 두번씩 Part Time으로 출석, 자료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석·박사 과정을 밟아왔다.

사원자녀 450명 컴퓨터교육 받아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사원자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20대가 동원되어 컴퓨터개론, GWBASIC, MSDOS, TGEDIT 등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원가족과 회사와의 유대감 형성과 적극적인 사원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 시작부터 신청자가 많아서 자녀들의 호응속에 마지막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1, 2차 4개조로 나누어 국민학생 320명, 중학생 130명 총 450명이 사내 컴퓨터교육장과 광주 컴퓨터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채석장 C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지난 9월 11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91년 전라남도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곡성공장 제조3과 '채석장 C분임조'가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는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광양제철 외 10개사가 출전하여 7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열띤 경합을 벌였는데, 곡성공장 대표로 참가한 채석장 C분임조는 '91년 곡성공장 사내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분임조로 '트레드 서비사(Servicer) 개선으로 생산성향상'이란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선봬

우리 회사에서는 창립50주년을 맞이하여 50, 55시리즈 신제품 초광폭 타이어 ‘벤투스’를 소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사 마케팅부와 상품기획부에서는 7월 12일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15일 대구·경북지역, 16일 부산·경남지역, 18일 대전·충청지역, 19일 광주·전라지역에서 신제품 ‘벤투스’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벤투스’붐을 일으키고 있다.

‘벤투스’는 세계적인 초고성능 타이어의 개발추세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및 개성화, 차별화되어 가는 국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개발에 착수, '88년에 개발완료한 제품이다.

이미 일본이나 북미·유럽에서 실시한 각종 성능시험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91년에 유럽의 E1 No. 및 미국 교통성의 UTQG 등록 등 국제규격을 획득한 상태이다.

노조임원 및 대의원 중국, 일본의 우수기업 방문

해외 우수기업의 건전한 노

사협조체제를 견학하고 노사공동의 관심사인 노조활동사례와 생산성향상제도 운영실태 등을 연구하여 향후 우리 회사 노사관계의 질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6~7월 3차에 걸쳐 총 67명의 노조임원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중국에서는 북경타이어, 북경 소형승용차유한공사, 연변 고무공장 등을 방문하였고, 일본에서는 후지교육센터 주관의 세미나, 그리고 YRC, 미쓰비시중공업, 스미토모기계공업 등 주요 관련업체를 방문하였다. 이번 해외연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선진국인 일본을 방문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며,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독신사원 기숙사 입주

영등포공장 독신사원 기숙사 입주식이 지난 8월 18일 일요일 11시 송덕수 관리부장과 임영민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공장 간부사원 및 기숙사 입주사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의 발전과 입주종업원의 축하를 위해 고사집례와 함께 입주기념행사가 마련되었다.

이 독신사원 기숙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332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건평 90평

에 6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서 21평형으로 되어 있고, 각 세대에 3개의 방이 있어 최소한 36명은 입주시킬 계획으로 7월 15일 매입하여 지방출신 미혼사원 인력확보, 미혼종업원의 주거안정과 복리후생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15명의 독신사원이 입주하여 세대당 5~6명이 단란한 기숙사생활을 위해 자치회(회장 한광섭)를 구성하는 등 부산한 모습에서 활기차고 의욕적인 회사생활이 기대되고 있다.

사원자녀 회사 견학

한마음 한가족 한목표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2일~8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원자녀 회사 견학을 실시하였다.

한국타이어 사원의 자녀로서 국민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1차에 본사, 영등포, 인천공장 소속 사원자녀 126명, 2차에 영등포공장 소속 사원자녀 125명, 3차에 대전공장 및 연구소 소속 사원자녀 143명, 총 394명의 사원자녀가 참가하여 회사 소개 VTR 시청 및 구내식당에서의 식사와 함께 대전공장내 각 생산공정, 연구소의 CAD실 및 테스트 트랙에서의 실차 주행시험 광경을 견학했다.

우성타이어

일본 OHTSU 타이어와 기술제휴

(주)우성산업은 금년초 프랑스 미쉐린 타이어사와의 합작 관계를 청산하고, 지난 8월 28일 일본의 OHTSU 타이어사와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HTSU타이어사는 작년도 매출액이 5억 1천만달러(세계 제15위)로서 SUMITOMO그룹이 이 회사 주식의 52%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종업원은 1,7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계약체결에는 당사측의 최승진 부회장과 OHTSU타이어측의 쓰지 아키오 사장이 참석하여 앞으로 5년동안 각종 래디알 타이어 생산과 관련된 기술일체를 제휴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주)우성산업은 이번 OHTSU타이어사와의 기술계약을 계기로 지금까지 트럭·버스용 바이어스 타이어를 만들어왔던 부산공장을 양산으로 옮김과 동시에 양산공장을 우성타이어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향후 우성그룹의 주력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재사원돕기 의연금모금

(주)우성산업은 지난 여름 경남지방을 휩쓴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한 사원들에게 수재의연금을 전달하였다.

특히 경남지방에 피해가 극심했던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사원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여 3명의 사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전사원들의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함으로써 따뜻한 동료애를 보여 주었다.

상반기 TQC 발표대회

(주)우성산업 타이어공장은 지난 7월 26일 대표이사 이승욱 부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1년도 상반기 품질관리 분임조활동 발표대회를 가졌다.

금년 분임조 외 10개 분임조가 참가한 이번 TQC 발표대회에서는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 다양한 테마로 열린 경합을 벌인 결과 영예의 금상은 '권취코드 운반방법 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생산부 생산과 성형계의 '등대불' 분임조가 차지했다.

친선도모 축구시합 벌여

(주)우성산업 부산 타이어공장에서는 지난 7월 27일 부산시 전포동 소재 중앙중학교 교정에서 사원간 및 부서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부 대생산 기술부 대항 축구시합을 벌였다.

지금까지의 역대전적은 총무부의 완패로 이어져왔으나,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시합에 임한 총무부가 3:2의 역전승을 거두었다.

여직원 유니폼 바뀌

(주)우성산업 여직원들의 유니폼(추동복)이 바뀌게 되었다. 금년도 가을을 맞이하여 종전의 유니폼에다 보다 산뜻하고 부드러운 색조를 가미하여 세련미를 살림으로써 사무실내 분위기를 한결 밝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산업의 여직원 유니폼(춘하복)은 금년도 여직원 유니폼 콘테스트(한국일보 주최)에서 치열한 경쟁끝에 그랑프리리를 차지한 바 있다.

전에 입던 유니폼은 자켓과 스커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라우스와 조끼를 더해 만들어졌는데, 여성스러움을 살리고 사무실에서의 능률성을 고려함은 물론 깨끗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어 여직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피게 되었다.